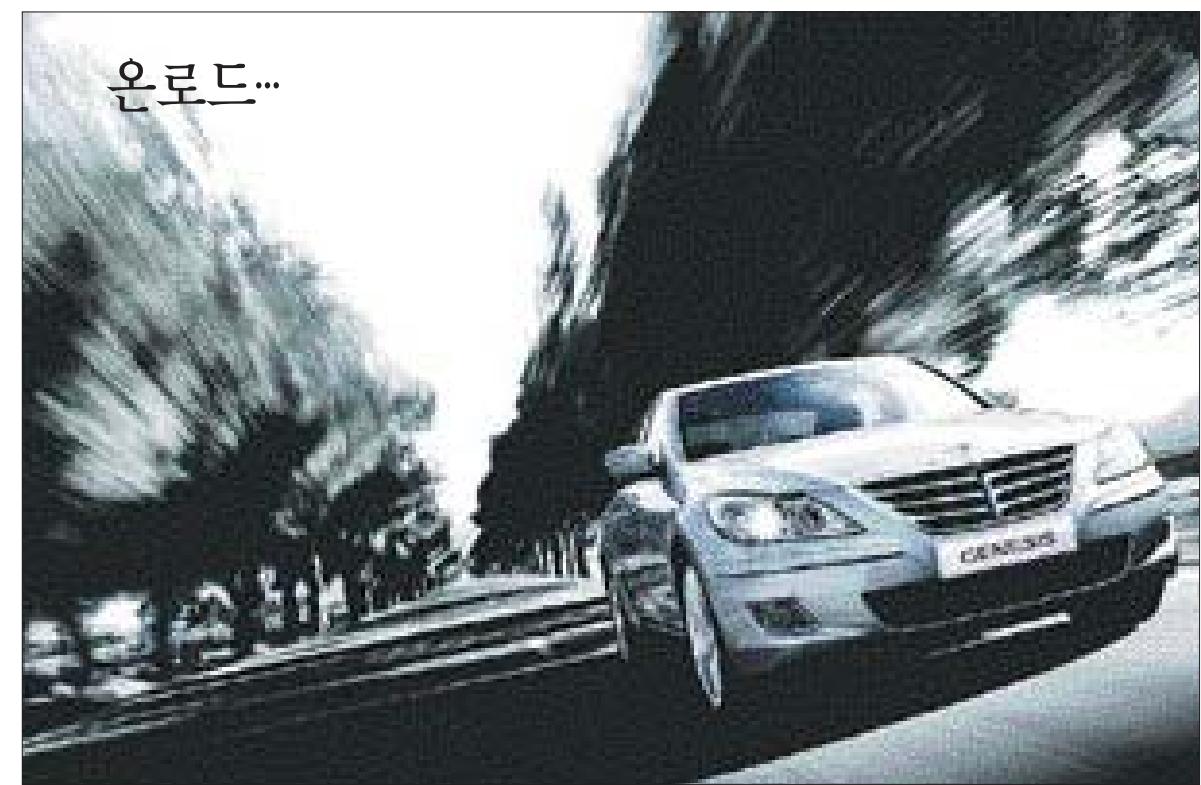




기아 모하비

질 주 본 등



현대 제네시스

국산 신차들 '기본형' 보다 '최고급형'이 더 팔린다

기아 모하비·현대 제네시스·쌍용 체어맨W
음성 인식 내비게이션 등 '최고급 사양' 경쟁


기아 모하비의 대쉬보드



쌍용 체어맨W

을 들어 국내 고급차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산자동차 업체가 최근 앞다퉈 고급 신차를 내놓거나 기존 모델의 사양을 한 단계 높이는 등 고급화 경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내 대형차시장의 경우 최고급 사양의 옵션을 선택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날로 늘어나는 등 수요자들의 고급 사양 선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고급 사양 판매 '불티' = 올해 출시된 기아차의 '모하비', 현대차의 '제네시스', 쌍용차의 '체어맨W' 등은 기본형보다 최고급 사양 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모하비'는 지난달 말 현재 총 3천600여대의 주문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3천만원 중반대의 기본형 모델인 JV 300의 주문대수는 240대로, 총 주문량의 7.1%에 그쳤다.

반면 5천만원에 육박하는 최고급 모델 KV300의 주문대수는 2천여대에 달하면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모하비' 고객 10명중 6명이 최고급 모델을 선택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제네시스'의 경우도 비슷하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말 현재 1만2천800여대가 예약 주문된 가운데 기본형 모델(3천300cc)의 판매 비중은 5.9%에 머물렀다. 반면 다양한 옵션이 장착된 3천800cc급의 판매 비중은 32%에 달한다.

특히 '제네시스'의 경우 500만원대의 고가 옵션인 통합 정보시스템(DIS) 장착률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에 달할 만큼 고급사양 선호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각종 옵션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옵션부품 조달을 크게 늘렸지만 '제네시스' 예약물량이 1만대를 넘는다는 점에서 기존 주문량을 소화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달 27일 출시된 '체어맨W'도 최고급 사양의 판매 비중이 30%를 넘어설 만큼 고급화 바람이 거세

다.
쌍용차의 프리미엄 세단인 '체어맨 W'는 국내 최초의 1억원대 차량으로, 국내 최대 배기량인 5천cc급 가솔린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 등을 달았다.

또 젊단 음성인식 내비게이션과 함께 차간 거리를 자동 조절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갖췄다. 운전석 및 뒷좌석에는 마사지 시트가 적용된다.

◇'그랜저' 등 기존 모델 업그레이드 '붐' = 현대차는 연초 '제네시스'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편의 사양을 대폭 보강한 '그랜저 뉴 럭셔리' 판매에 들어갔다.

이 차는 국내 최초로 하나의 모니터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듀얼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장착했다. 이 모니터를 사용하면 운전석에서는 지도를, 조수석에서는 영화나 TV를 동시에 볼 수 있다.

또 룸미러 왼쪽에 후방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는 3.5인치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를 장착했다.

현대차는 또 연말에 '에쿠스'의 후속모델인 'VI(프로젝트 명)'를 출시해 국내 최고급차 경쟁에 빼기를 박겠다는 계획이다. 이 모델은 후륜구동방식에 4천600cc 타우 엔진과 6단 변속기 등을 달게 된다.

르노삼성은 최근 'SM7'을 부분 변경한 'SM7 뉴 아트'를 내놓았다. 이 차는 세계적인 오디오 회사인 '보스'의 사운드 시스템을 얹어 한 차원 높은 음질을 자랑한다. 또 삼성 전자의 '플라즈마 이오나이저'를 달아 차량 공기 중 유해 물질도 잡아준다.

기아차는 가격을 내린 '오피러스' 스페셜 모델로 맞서고 있다. 기존 '오피러스' GH270 고급형과 고급 럭셔리 모델에 장착됐던 일부 편의 사양을 빼는 대신 가격은 평균 300만원 정도 낮췄다. '오피러스' 스페셜 모델에는 기존 GH 고급형에 장착했던 가죽시트, 자외선 차단 글래스 등 편의 사양을 없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모니터에 두개 화면, 지도·영화 동시에 볼수 있는
'듀얼 디스플레이' 등 기존 모델들은 업그레이드 봄


그랜저 듀얼디스플레이



그랜저 시트

황산·장가계

名山紀行

모두투어 광주/전남/목여행사 편애

문의전화 010-226-5070

[] 무안 → [] 황주(황산) 직행		2008년 4월 22일 ~ 5월 10일 예약 가능	
● 황주·신관·온수	→ 349,000 원	● 황산(황제기념관)·황주	→ 449,000 원
● 황산(황제기념관)→[] 황주(황산)	→ 349,000 원	● 황산(황제기념관)→[] 황주(황산)	→ 449,000 원

[] 무안 → [] 장가계 직행		2008년 4월 22일 ~ 5월 10일 예약 가능	
● 장사·장가계·장기계	→ 349,000 원	● 장사·장가계·장가계	→ 449,000 원
● 장사·코끼리마을	→ 349,000 원	● 장사·도의마을	→ 369,000 원